

11일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6909.91 (-124.01)	820.64 (-16.28)		
↑ 금리 (미국 9년)	↓ 환율 (원-달러)		
4.014 (+0.084)	1342.60 (-3.30)		

세대교체 택한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임기 중 리딩금융·최고실적 기록
양종희 회장 ‘연임론’ 예상 깨져
차기 회장 ‘미래 성장동력’ 과제
11월20일 임시주총서 새 회장 선임

올해 순이익 6조원 돌파를 앞둔 KB금융 그룹이 ‘안정’ 대신 ‘변화’를 택했다. 양종희 회장이 무난히 연임할 것이라 금융권의 예상



을 깨고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사진)이 차기 리더로 낙점됐다. 13일 KB금융에 따르면 최종 후보자인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된다.

◆ 리딩뱅크가 증명한 ‘투명·공정’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경영승계절차를 시작한 것은 사실상 지난 4월이다. 두 차례 회의를 통해 ‘회장 자격요건 세부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검증 테이블에 올릴 후보자군(Long List) 20명을 확정했다. 임기 만료가 반 년 이상 남았지만 경영승계절차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후보자 검증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다.

KB금융 회추위는 올 반기 보고서 기



이창동 감독 ‘가능한 사람’ 베네치아 심사위원대상
즈를 취하고 있다. <관련기사 L4>

영화 ‘가능한 사람’으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이창동 감독이 12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제83회 베니스 영화제 폐막식에서 포

/AP·뉴시스

준으로 조화준 위원장을 비롯해 여정성·최재홍·차은영·이명환·김성용·김선엽 등 7인으로 전원 독립이다.

5월에는 회추위원만 참석하는 주주간 담회를 개최해 주주가 바라는 회장의 자질과 역량, 경영승계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어 6월에는 최종 후보 선정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는 준칙을 결의하고, 기존 20명 후보군을 내·외부자 각 6명씩 총 12명으로 압축했다.

1차 최종 후보자군(ShortList)을 공개한 것은 7월이다. 내부 후보는 양 회장

과 이재근·이창원 KB금융 부문장, 이환주 국민은행장 등 4명이었다. 외부 후보 2인은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과 익명을 요청

(3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KRX ‘애프터마켓’ 오후 8시까지 운영 NXT와 퇴근 후 주식 경쟁구도

한국거래소(KRX)가 애프터마켓을 개설하면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와의 거래시간 경쟁이 본격화된다. 그동안 NXT가 선점해온 오후 시간대 거래에 한국거래소가 합류하면서 투자자들은 거래 종목과 수수료 등을 비교해 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미 NXT에서 정규장 외 거래가 전체 거래의 4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퇴근 후 주식 거래 수요를 둘러싼 양 거래소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14일부터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시간외 접속매매)’을 운영한다. 기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던 시간 외 단일가 매매는 폐지되고, 정규장과 같은 접속매매 방식으로 주문이 실시간 체결된다. 앞서 NXT가 지난해 3월부터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운영해 온 가운데 한국거래소까지 애프터마켓을 열면서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양 시장의 거래시간이 겹치게 됐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저녁 시간대 유동성이 정규장보다 낮은 점을 고려해 지정가·최우선지정가·최유리지정가만 허용하고 시장가 주문은 제한한다. 가격 변동폭은 정규장과 동일하게 전일 종가 대비 ±30%를 적용한다.

NXT의 애프터마켓 거래 수요는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4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



metro

국제유가 급등… 석유최고가격제 인상 우려

중동 發 에너지 불안 심화 조짐
2~3주 시차 유가가격 반영 예상

지난 상반기 전 세계를 강타했던 에너지 불안이 재차 심화할 조짐이 생겼다. 페르시아만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흐름은 최근 석유 값의 급변으로 귀결됐다. 국제유가가 4개월 만에 다시 100달러를 찍었다. 단발성 급등에 그치지 않을 시 국내 물가에 최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속 경기 위축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국제석유시장에서는 중동산두바이유 선물 가격이 지난주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섰다. 이어 북해산브렌트유와 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도 주말을 거치며 100달러대 거래에 합류했다.

이달 11일(현지시간) WTI 선물(10월 인도분)은 배럴당 100.0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그 전날인 10일 이미 100달러대에 진입했는데 9일 대비 하루 새 6.69%나 뛰었다.

5월 하순 내림세에 접어든 WTI 가격

은 7월 초 68달러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후 8월 들어 증가로 전환했다. 8월10일(82.13달러) 80달러를 넘긴 뒤 9월1일(90.22달러) 90달러를 돌파했다. 이어 100달러 선(9월10일 102.48달러)까지 불과 6거래일 만에 내달렸다. 브렌트유와 두바이유 선물도 11일 기준 각각 104.61달러, 114.91달러까지 치솟았다.

다만 국내 시세는 2~3주 시차가 있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에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다. 가격을 정부가 억제하는 석유최고가격제(주유소 판매가 상한제)도 여전히 시행 중이다. 그러나 국제유가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역시 상한 가격을 밀어 올릴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부발 상한은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웃돈 3월 말~6월 말 기간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으로 현재(9월) 최고가격: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와 비교해 크게 높았다. 이달 하순 10차 상한 고시가 예정돼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M-커버스토리

검색·대화 기반 ‘AI 생태계’ 확장 속도전

네카오 ‘AI비서’ 새 관문

네이버 ‘AI탐’ 검색 의도·맥락 파악
쇼핑장소 탐색·예약 등으로 연결
카카오, 대화맥락 이해 정보 제안
매일 아침 일정 브리핑 등 ‘선택’

PC 시대 인터넷의 관문이 포털이었다면 모바일 시대에는 앱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이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다음 행동까지 수행하는 ‘AI 비서’가 새로운 관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AI 경쟁의 무게중심도 더 똑똑한 거대언어모델을 만드는 ‘모델 경쟁’에서 이용자가 매일 사용하는 서비스와 AI를 결합하는 ‘플랫폼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13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검색과 카카오톡

이라는 대규모 이용자 기반을 앞세워 AI 에이전트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가 검색에서 ‘실행’으로 영역을 넓힌다면 카카오는 일상적인 ‘대화’를 실행의 출발점으로 만드는 전략이다.

◆네이버, 검색에서 ‘실행’으로…초록창을 AI로

네이버의 출발점은 검색이다. 지난 6월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식출시한 대화형 검색 서비스 ‘AI탐’은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의 검색 의도와 맥락을 파악해 쇼핑과 장소 탐색, 지도 확인, 예약 등 실제 행동으로 연결한다.

네이버가 모바일 검색의 상징인 ‘그린닷’ 자리를 AI탐 중심으로 재편한 것도 변화를 상징한다. 일평균 5000만명이 방문하는 네이버 메인에서 AI를 별도 서비스가 아닌 검색의 기본 경험으

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AI탐은 정식 출시 이후 빠르게 이용자를 확보해 8월 초 월간 활성 이용자 수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네이버의 무기는 검색 뒤에 이어지는 자체 생태계다. 검색과 쇼핑, 지도, 플레이스, 예약, 부동산 등 이미 확보한 서비스와 데이터를 AI로 묶을 수 있다. 이용자가 맛집을 찾은 뒤 다시 지도와 예약 서비스를 찾아가는 대신 하나의 AI 흐름 안에서 탐색부터 실행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연내 부동산·건강 분야 전문 에이전트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네이버의 광고·커머스 사업과도 직결된다. AI탐 베타 기간 상품과 장소 카드 클릭률은 각각 20% 이상을 기록했다.

(3면에 계속)

/최빛나 기자 vitna@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국힘, “이재명 정권이 하는 것은 개혁 아닌 개혁…실익은 정책에 국민 고통 최대화”
▲장동혁, 용혜인 사퇴에 “장관보다 조직 선택…‘좌파 카르텔’ 파헤쳐야”

/사진 뉴시스

▲주진우, “김승원 가족 운영 협동조합, 수원시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특혜 의혹”
▲한동훈, “민주 국회의원들, 남편 룸살롱 브로커에 ‘오빠’ 소리 들어도 괜찮냐”

▲김민석, “용혜인과 진보 세력 연대·정치 개혁 논의에 박차 가할 것”
▲조국혁신당, 조장특위 심사 결과 발표…“조국 평택시 지역위원장 선정”